

中央藥大 同門會報

The Alumni News of the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2020
vol. 46

Summer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http://www.caupharm.or.kr>

코로나19 우리가 이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그 날까지!



Contents

중앙약대 동문회보 2020년 여름호

시론

- 3 동문은 영원하고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김광식(30회) 동기회장

인사말

- 5 동문님들의 뜻을 잘 받들고 새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광훈(22회) 동문회장
- 7 모교의 발전과 변화에 대한 의지를
지켜봐 주십시오
김하형(31회) 약학대학 학장
- 9 모교 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욱(24회) 중앙대학교 대학원장

동문회소식

- 10 화보

특별기고

- 13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이다
김은진(29회) 고양시분회장
- 15 공적 마스크 유감(有感)
임성호(36회) 강서분회장

약국도움 이야기

- 17 특정연령대 금기 항생제 사용의 필요성과
병원약사의 역할 전망
임형미(32회) 중앙대학교병원 약제부장
- 21 SARS-CoV-2의 이해와 약물
김명철(39회) 대한약사회 학술위원

추모의 글

- 29 임성기 회장을 추모하며
임완호(6회) 풍전약품 회장

학교소식

- 30 한국휴텍스제약 대학발전기금 전달식
교수동정

- 32 만평

- 33 장학기금

- 34 회비내역

- 36 편집후기

동문회좌담회

- 25 동문회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젊은 후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편집위원회

동문은 영원하고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작은 일이라도 앞장서자

“막내 왔어?”

아직도 선배님들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고 있습니다.

테헤란로 오피스텔의 어둡한 복도를 따라 굽이굽이 도착하면 기라성같은 선배님들이 탁자와 의자에 둘러앉아 회의를 하고 계셨습니다. 30대 중반 나이에 턱걸이한 필자는 회의 자료를 쳐다보며 선배님들의 말씀을 듣기 바빴습니다. 그 배움이 기나긴 약사회 활동의 바탕이 되었지요.

회의가 끝나면 으레 지하에 있는 식당에서 간단한 식사 겸 뒷풀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친교의 시간, 선배와 후배가 격의 없이 어우러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막내야 한잔해라.”

술을 잘 못 마시는 막내는 선배님들의 정을 받아먹느라 얼굴이 불그스레해지기 일쑤였습니다. 그 정(情)의 값에, 선배님들의 배려에 대한 보답으로 회의에 꼬박꼬박 참석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김 광 식(30회)
동기회장

“회장님, 골프대회를 동문 체육대회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 막내는 시간이 지나 동문회 사무총장이 되었습니다. 사회 경륜과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개성이 톡톡 튀는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거쳐 간 자리를 어떻게든 잘 해 내려고 머리를 싸매고 끙끙대었지요. 그러나 2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기획한 일을 1년간 실행하고, 그것을 정례화시키려고 하니 임기 말이었습니다. 일의 연속성을 위해 차기 사무총장감을 부총장으로 하였으면 했지만 임기가 끝나자 그 의지는 빛을 잃었습니다.

선배님들께 한동안 막내로 인식되었듯이, 30회 이후 기수들의 동문회 참석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사회 흐름상 직장 진입도 늦어지고, 결혼도 늦어지니 출산·육아도 늦어지고, 수명도 길어지듯이 약사들도 사회 진출과 자리잡기도 느려지고, 의약분업으로 약국에서 더 꼼짝없이 일해야 하며, 동문회나 동문 모임을 위한 시간을 내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더구나 SNS 등 소통의 활성화로 약사회 회원간, 지역 약사간, 그리고 취미활동이나 사회생활 구성원간 소통은 더욱 늘었습니다. 동문회가 아니더라도 신경 쓰는 곳이 많아진 것이지요.

그렇지만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선후배 동기간의 끈끈한 정이 우리 동문의 힘입니다. 거기다가 그 구성원이 머리 좋고 정의로우며 일도 잘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동문들의 인연은 단순히 학연이라는 말로 치부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게 설명할 일 없이 친해지려면 자주 만나고 어울려야 됩니다. 동문회 초년기 시절의 선배님들처럼 내가 후배들에게 따뜻한 정을 주고, 식사도 술도 사주면서 같이 놀아준 적이 얼마나 되나 반성해 봅니다. 그 반성을 토대로 우리 중앙대 약대만의 장점인 후배들의 미래 길잡이 행사인 '멘토링 데이'에 멘토도 되어 보고, 지역동문회 활성화를 위해 나름대로 적지 않은 노력을 했다고 자부하지만 그것이 큰 결실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절실하게 느낀 것은 사회는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 곳이라 혼자가 아니라 동문 모두가 분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크든 작든 동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몫을 해줄 때 비로소 동문회라는 큰 그림으로 완성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지요.

따져보니 저희 또래의 건강수명도 20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재미있게 살아갈 시간이 무한정으로 많이 남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실감합니다. 동문 선후배 여러분, 동문은 영원하고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 인생의 바탕이 되고 기둥이 되어준 중앙대 약대와 동문회의 발전을 위해 부탁드립니다.

“내 일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작은 일이라도 앞장서서 해주십시오. 우리 중앙대 약대 동문회에 동문 여러분의 열정과 의지를 좀 더 투자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동문님들의 뜻을 잘 받들고 새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50여일의 장마와 함께 보내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선·후배 동기 동문님들 안녕하시죠? 동문회장 최광훈 인사드립니다.

Untact Uncontact라는 말로 대표되는 Pandemic 현상이 일상을 완전히 집어삼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문회는 지난 가을 '동문 만남의 날'을 성황리에 치렀으며 금년 1월 11일 신년교례회를 가진 이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문회 집행부는 동문회와 학교와의 상호 발전방안, 서로 살피주고 격려하는 동문 화합과 단합, 젊은 동문들이 좀 더 동문회에 가까이 다가서기 위한 안내, 각 지역과 직능이 보다 더 동문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 등을 연구하며 실천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은 2022년부터 통 6년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계기로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학년 정원 120명이 6학년까지 있게 되므로 480명에서 720명으로 크게 약대 정원이 늘어나고 그만큼 큰 힘을 갖는 단과대학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런 결과가 얻어지기까지 쉽지는 않았지만 약대 학장님을 위시한 교수님들, 동문회 집행부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 얻어낸 결과라고 생각하며 우리 동문의 힘이 정말 크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 번 동문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간 진행되었던 일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31일에는 호국이라는 말을 다시금 새겨보고 학교 주변의 경관도 살펴보는 현충원 둘레길을 걸어 학교 앞에 모여 최종이사회를 개최하고 식사를



최 광 훈(22회)
동문회장

하였습니다. 참석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많은 이사님들이 가까이 자리를 같이 해주셨습니다.

7월 21일에는 새로운 제도 하에서 학교를 다닌 6년제 약대 후배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2009년 이후 입학한 각 기수별 대표를 초청해서 우리 동문회 역사, 발자취, 구성과 동문들의 활동상 등을 알려주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후배들은 선배동문님들이 심어준 자부심에 감사함도 표했고 동문회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발전을 위한 노력을 같이 하겠다고 다짐도 했습니다.

우리 동문님들이 진출해있는 각 지역의 만남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여건이 허락지 않음에 안타까움만 쌓여갑니다

약사사회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 동문회 집행부는 동문님들의 뜻을 잘 받들고 새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큰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9월 13일은 많은 동문님들이 만남의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는 '2020 동문 골프축제'를 계획하고 준비하여 최대 참가인원을 확정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젊은 동문들의 참가 열의가 넘쳐나고 있어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문과 동문회는 분명 큰 발전을 위한 움직임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극복해야만 되는 큰 어려움이 바로 옆에 와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동문님 한분 한분 모두 강건하시고 어려움 흔쾌히 이겨내시고 계속 즐겁고 행복한 삶 영위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교의 발전과 변화에 대한 의지를 지켜봐 주십시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6월부터 약학대학 학장을 맡게 된 김하형 교수입니다.

저는 중앙대 약대 83학번(31회)이며, 1997년 3월 모교에 약품물리화학전공 조교수로 부임한 이래, 약학과장(당시 손의동 학장님), 약학부장(당시 김대경 학장님)을 역임하였고, 학부에서는 약품물리화학(물리약학), 무기방사성 의약품, 무기제약/물리약학실습등을, 대학원에서는 바이오의약품특론, 희귀 질환치료제특론, 제약산업 및 물리약학 등의 강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항체의약품, 효소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 관련 연구를 1987년부터 동경대학(석사, 박사), 옥스퍼드대학(박사연구원), 그리고 중앙대(조교수, 부교수, 교수)에서 33년 동안 해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한국연구재단 등의 국책과제,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4권 제작), 국내외 제약 산업체와의 협력 연구 등을 수행해오면서 그 과정에서 얻은 성과를 다수의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기술이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 하 형(31회)
약학대학 학장

우리 중앙대 약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53년부터 현재까지 67년간 국내 약학 교육을 선도하고 있으며, 국민 건강증진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8천여 명의 동문을 배출하였고, 현재는 2022년 6년제 약학 교육의 전환점을 맞아 새로운 교육 시스템과 교과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대 교수님들께서 교육과정위원회, 환경제도 공간조정위원회, 실무실습위원회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약학대학은 현재 학부(약학부 약학 전공, 제약학 전공)와 대학원(약학과, 제약학과, 글로벌혁신신약학과)에서 전임 교수 35명과 석·박사 연구인력 100여 명을 확보하여 국가 중점 육성 산업 분야인 제약 산업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약대 교수님들은 다양한 국책과제 및 제약회사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논문(최근 5년간 SCI 952편, 상위 10% 이내 SCI 168편), 기술이전(최근 5년간 128억 원) 실적을 내고 있고, 제약기업의 난제 기술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약사 네트워크인 우리 약대 동문회에서는 감사하게도 약대 재학생들에게 매년 80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하여 왔고, 동문 멘토링 프로그램에서는 5학년 재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졸업 후 다양한 분야의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병원 약국, 제약회사, 벤처회사, 연구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공직과 국내외 대학교수, 연구원으로 활약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대 약대는 동문 여러분의 모교 사랑에 부응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하여 최고의 역량을 지닌 약사, 약학사, 약학석사, 약학박사가 되어 배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

저는 10년 전 큰 수술(간이식 등)을 3번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에 유의하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모교의 발전과 변화에 대한 의지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학교 발전에 대한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여러분들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교 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지면으로 인사 드립니다. 코비드-19로 세상이 온통 어수선하지만 모두 가내평안하시고 건강히 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 전 2002년부터 3년간 약학대학 학장으로 재임하면서 동문 여러분의 사랑과 후원에 힘입어 약대 발전기금 모금, 약대 개교 50주년 기념 행사, 중약 50년사 발간 등 모교에 재직하는 교수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혼신의 힘을 쏟았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이 기회를 빌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동문 선후배님들께 거듭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세월이 우수와 같아 어느새 저도 원로 교수가 되었습니다. 정년도 멀지 않은 시점이라 개인적으로 그간 30여년의 교편 인생을 반추해야 하는 시점에서, 지난 2월 대학원장에 보임되어 한편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학교 발전에 마지막 불꽃을 태운다는 생각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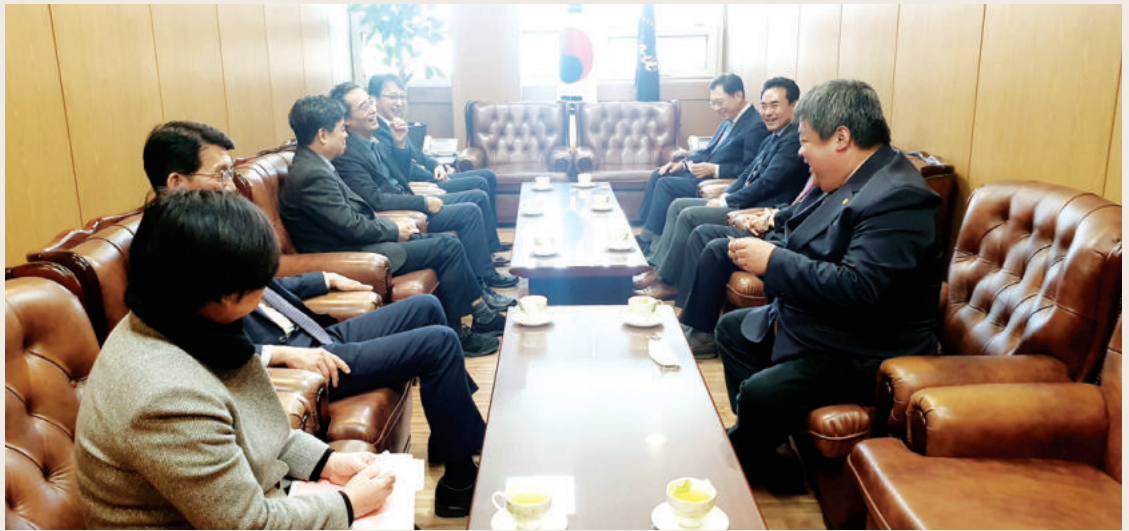
마침 정부에서 지원하는 '4단계 두뇌한국 21(BK 21 FOUR) 사업'이 2월 초에 공고가 나면서 각 대학이 사활을 걸고 전력질주 하고 있던 시점 이라서 더욱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이후 약 4개월에 걸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대학원 본부는 물론 각 연구단/팀 별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중앙대학교는 18개 연구단과 13개 연구팀이 6월 중순에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우리 약대도 2개의 연구단을 꾸려 미래인재양성사업과 혁신인재양성사업에 각각 도전장을 냈습니다. 이후 한달 여 동안의 발표 평가 및 심사를 거쳐 8월초에 최종 결과 발표가 났고, 학교 전체로는 9개 연구단과 5개 연구팀이 선정되는 좋은 성과를 거두어, 비로소 연구중심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 약대도 '글로벌 혁신신약 인재양성 교육 연구단(단장 오경택 교수)'이 선정되어 이제 연구의 내실화를 기함은 물론 우수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명문 사학으로서의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명성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발판으로 글로벌 대학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랑스런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모교에 재직하는 교수로서, 이제는 대학원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고 부여된 책무를 다하여 모교 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최영욱(24회)
중앙대학교 대학원장



3월 27일_ 경북약사회, 대구약사회 코로나19 후원금 전달

4월 10일_ 회장단회의

4월 24일_ 중앙대학교 박상규 신임총장 면담

4월 24일_ 감사수감

- 01
- 02
- 03
- 04





- 01
- 02
- 03
- 04

5월 16일_ 여동문회 월례회
 5월 19일_ 고문단, 자문위원단 회의
 5월 31일_ 최종이사회
 6월 23일_ 약학대학 김하형 신임 학장 상견례





01

02

03

7월 1일_ 골프준비모임

7월 3일_ 편집위원회

7월 21일_ 역대 학생회장 간담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이다

-137일간의 공적마스크 판매를 마치고-



지난 1월 19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검역 과정에서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발견된 중국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1번 확진자로 판명되었다는 뉴스를 볼 때만 해도 우리는 7월이 끝나 갈 때까지도 마스크를 쓰고 다닐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다.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생일축하송을 2번 정도 흥얼거려야 하는 30초 동안 손을 씻으면 코로나쯤은 물리칠 거라 여겼었다.

그런데 코로나 19는 그리 만만한 녀석이 아니었고 우리의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중국에서 들려오는 뉴스로 국민들은 걱정과 공포심으로 마스크를 찾아 헤매고, 약사회원들은 판매할 것은 고사하고 약국근무자용 마스크 좀 구해 달라고 아우성이었다.

그러면서 우후죽순 올라온 의견 중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마스크를 공급하도록 약국청구프로그램을 적용하자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하였다. 이런 급박한 상황을 배경으로 최일선의 방역용품인 마스크를 또다시 편의점과 마트에 뺏길 수 없다는 각급 약사회 집행부의 노력이 모여 드디어 24,000여개 약국의 공적마스크 공급을 위한 DUR 시스템이 가동이 되었다.

김은진 (29회)
고양시분회장



15년전 DUR 시범사업에서 청구프로그램의 과부하로 고생하였던 기억으로 시민들이 전국의 약국에 일시에 모여들었을 때 과연 무리가 없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그건 IT 강국인 한국의 현실을 잘 모르는 기우였다. 절대적인 공급수량의 부족과 포장단위, 그리고 수시로 변하는 판매 지침이 현장의 약사들을 힘들게 하였을 뿐이었다.

그렇게 우리 약사들은 코로나 19의 최전선에서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방역용품의 공평한 분배에 최선을 다하며 137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였다. 끝없이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에 지친 국민들의 푸념을,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나 지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까지를 온몸으로 수용해 가면서 말이다.

고양시 400개 약국의 마스크공급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의 여정을 어찌 몇 줄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국가재난 상황에서 방역용품 공급자의 역할을 다하는 와중에서도 뉴스를 통해 바뀐 지침을 확인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아직 약사회의 역량과 입지가 약하다는 사실을 절감해야만 하였다. 약사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고, 조직이 보여줘야 할, 아니 해야 할 몫이 분명히 따로 있을 것이다.

이제 공적마스크 판매가 종료되었지만 간간이 긴급안전문자로 날아오는 확진자 정보를 접하며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하루빨리 인간의 과학기술이 코로나바이러스 쫓은 거뜰히 물리쳐서 예전의 일상을 되찾길 간절히 바라며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시간이 흘러 약사 인생을 뒤돌아볼 때 결코 잊을 수 없는 2020년, 그 봄에 우리는 만개한 목련과 벚꽃을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그래서 공적마스크 판매 137일은 더욱 의미있는 동참으로 기억하게 될 것 같다.



마스크 판매를 국가가 통제하는 미증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꿈에도 못 꿰던 일이다. 마스크와 손 소독,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일상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습관들에 전 국민이 익숙해져야만 했다.

국민 모두가 협조한 덕에 전 세계가 'K-방역'에 감탄과 찬사를 보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다 이해하고 따라 하는 걸까? 갑작스러운 바이러스의 공습 앞에 의약전문가나 평범한 일반 국민들 모두에게 공포 분위기가 극에 달했고, 이런 불안심리를 가진 국민들을 대상으로 절대적으로 모자란 공급량의 공적마스크를 판매했던 약사들 또한 마찬가지였다. 약국 앞에 길게 늘어선 구매자들을 보며 때때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공포심마저 느껴본 적이 있다는 약사들도 꽤나 있었다.

약국마다 두세 시간씩 줄서기를 마다하지 않으며 공적마스크를 사는 진풍경은 약사들 입장에서는 거친 민심에 행여 불필요한 마찰이라도 생길까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 그야말로 국가적 재난위기에 '감염'의 위협을 무릅쓰고 헌신했다.

임 성 호 (36회)
강서분회장



이런 와중에 약사들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대한약사회장은 4월 7일에 있었던 서울시 분회장 협의회 회의 석상에서 공적마스크에 대한 유감스런 발언을 이어갔다. 그 첫 번째가 공적마스크 대금 결제와 관련한 금융비용 할인 적용 문제였다. 공적마스크는 의약외품이어서 약사법상 의약품에만 금융비용 할인이 적용되는 것이니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했었는데, 4월 말이 되자 공적마스크를 공급했던 모든 도매상에서 전격적으로 적용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약사들의 당연한 법적 권리를 대한약사회장이 보장하지 못하고 마치 도매유통을 대변하는 듯한 블랙코미디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다.

두 번째는 공적마스크 구입과 판매에 따른 세금에 대해 대한약사회장의 이름을 걸고 면세관련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부가세 면세와 종합소득세 비과세에 대해 호언장담했다. 다만 모두 힘든 상황이니 국민들의 눈을 의식해서 415총선 이후 코로나 관련법 통과 때 면세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4월 총선 이후 면세관련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불발된 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된 것 외에 진척된 상황은 없었다. 당장 7월의 부가세 확정 신고 때 세금 면세와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많은 회원들이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지만, 대한약사회장의 약속은 어차피 불발된 것이 현실이고, 안 될 것을 쳐다보며 속상해 하느니 긍정적으로 판단하려 하는 모습 앞에 그렇게 해서라도 스스로 위안을 삼아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기만 하다. 국가의 재난 위기에 참여한 바람에 매출 과표만 불필요하게 올라가서 그로 인해 실제 평소 소득보다 더 높은 부담을 지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할 말이 어찌 없을 것인가?

처음부터 대한약사회가 분회장들과 긴급회의를 거쳐 공적마스크를 취급하는 부분을 함께 논의했다면 이런 불만들은 상당히 많이 경감되었을 것이다. 국난위기에 동참할 의지와 명분을 찾고 그러면서도 실무적으로 생길 수 있는 과정과 결말 이후의 상황에서 가장 문제의 소지가 될 부분들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동안 많은 분회장들은 대한약사회의 소통 부재에 대해 답답함과 안타까움,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다. 조세특례법이 제정이 되지 않는다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적마스크 판매의 결과는 고스란히 반영이 될 것이다.

대한약사회 사상 최초로 서면 대의원 총회에서도 회원들의 이런 절박한 현안 질의에 대해 '건의사항은 회무에 반영하겠음'이란 한 줄 표현으로 대응하는 처사는 회원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답도 못할 무능력의 소치, 그리고 소통이 아닌 먹통 회무를 하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약사들이 대략 4개월간에 걸쳐 일부에서 마스크 판매에만 몰두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바 그로 인해 약사라는 전문직능을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닌지 두 번 세 번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다. 사후약방문이라지만 사후약방문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다.

약사들은 약국에서 언제까지 마스크만 쳐다볼 일은 아니란 걸 빨리 깨달아야 한다. 약의 전문가인 약사도 코로나 감염병에 대해 전문가의 목소리를 내 보기를 기대해 본다. 공적 마스크 판매는 끝났지만 공적마스크가 약사들에게 많은 생각할 것들을 던져준 것만큼은 분명하다. 어떤 일을 해도 완벽하게 만족스럽게 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많은 회원들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은 적어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더 나은 대한약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터, 충정을 가지고 몇 자 적는다.



임 형 미 (32회)
중앙대학교병원
약제부장



특정연령대 금기 항생제 사용의 필요성과 병원약사의 역할 전망

의약품 적정사용(Drug Utilization Review, 이하 DUR)

DUR은 약물 병용시 또는 어린이, 노인, 임부에게 투여시 주의해야 하는 의약품 정보 등을 알리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약물 사용이 적절하게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이다.

2004년 병용 및 특정연령대금기 의약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해당 정보를 제공한 것이 DUR의 시발점으로 2010년 12월부터 한국형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을 전국 요양기관으로 확대하였고, 2019년 8월부터 약물사용 전후 포괄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개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DUR 고도화 사업을 운영하였다.

2019년 12월 17일 기준

성분명	연령기준
금기 (고시)	병용금기(1,081), 특정연령대금기(177), 임부금기(855)
주의 (공고)	효능군 중복주의(330), 용량주의(355), 투여기간 주의(45), 노인주의(28)
정보제공	헌혈주의(7), 분할주의(1,774, 품목기준)

특정연령대금기로 되어 있는 levofloxacin과 doxycycline의 소아사용

Levofloxacin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년 DUR모니터링(입원포함)자료에서 연령 금기로 점검된 다빈도 품목 중 7번째로 분석되었고 금기사유는 아래와 같다.

성분명	연령기준	제형	허가사항
doxycycline	12세 미만 (다만, 다른 약을 사용할 수 없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에만 8세 이상 신중투여)	정제, 캡슐제	소아 등(특히 치아 형성기인 12세 미만의 소아)에 투여 시, 치아의 착색·법랑질 형성 부전, 또는 일과성 골발육 부전을 일으킬 수 있음.
levofloxacin	18세 이하	정제, 주사제	안전성 및 유효성 미확립 퀴놀론계 항균제는 몇몇 어린 동물종에서 관절병증, 뼈연골증을 유발

소아 사용의 필요성

우리나라 호흡기 감염 주요 원인균의 항생제 내성률은 심각한데, 소아청소년 지역사회 획득 폐렴의 주요 원인균인 *Mycoplasma pneumoniae*의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에 대한 내성률이 2000년 0%에서 2011년 62.9%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아청소년 시기의 하기도 감염의 원인이 대부분 바이러스지만 세균 감염이 이차적으로 합병될 수도 있으며, 세균에 의한 하기도 감염일 경우에는 적절한 항생제를 조기에 투여하면 임상 경과를 단축시키고 예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임상 증상이나 진찰 소견 및 흉부 엑스선 검사 등만으로 하기도 감염의 원인을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하기도 감염으로 진단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 경험적 항생제를 처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항생제 내성률을 감소시키고 항생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생제 치료가 효과적인 세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Mycoplasma pneumoniae*에 대한 감염전문가의 항생제 권고**

- 1차 선택 항생제로 8세 이상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또는 doxycycline, 7세 이하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로 시작한다.
- 3~5일 후 증상의 악화가 발생한 경우 7세 이하 소아에게도 doxycycline 또는 levofloxacin 투여 고려할 수 있으며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 doxycycline은 영구치가 나지 않은 소아에게 치아 착색 등의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항생제 사용으로 인한 이점이 이상 반응보다 더 큰 경우에 사용하도록 하며, 보호자에게 약물 사용에 따른 이점과 이상 반응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18세 이하 소아에게 fluoroquinolone계 항생제 중 소아에게 사용 경험이 비교적 많은 levofloxacin을 2차 선택 항생제로 사용할 수 있다.

성분(제형)	적응증	용량	최대용량
doxycycline (경구)	마이코플라스마균 클라미디아균	4mg/Kg/일, 2회 분복	200 mg/일
levofloxacin (경구)	폐렴알균의 페니실린에 대한 MIC \geq 4.0 μ g/ml 마이코플라스마균 클라미디아균	5세미만 : 16-20 mg/Kg/일, 2회 분복 5세이상 : 8-10 mg/Kg/일, 하루 1회 근골격계 성숙이 이루어진 청소년: 500mg, 하루 1회	750 mg/일
levofloxacin (주사)	폐렴알균의 페니실린에 대한 MIC \geq 4.0 μ g/ml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균 마이코플라스마균 클라미디아균	5세미만 : 16-20 mg/Kg/일, 12시간 간격 5세이상 : 8-10 mg/Kg/일, 하루 1회	750 mg/일

그 외 사용의 필요성

- MDR-Tbc (multidrug-resistant tuberculosis, 다약제내성 결핵)에서도 소아 환자에서 levofloxacin이 치료제로 이미 사용되고 있다.
- Quinolone은 IV 제제와 PO제제의 생체 이용률이 거의 동등하여 환자 상태가 나쁘지 않다면 응급실에서도 밤사이 PO제제 처방 후 퇴원시킬 수 있다. Ciprofloxacin 경우 10대 후반의 연령에서 pseudomonal infection에서 경구항생제로의 전환 시 필요한데, 전환이 어려운 경우 ceftazidim, piperacillin/tazobactam 주사의 투약을 위한 입원기간 연장이 필요하게 된다.

적절한 항생제 사용을 위한 병원약사의 역할 전망

감염관리 약료서비스(Infectious Disease Pharmacy Service) 개요

항생제스튜어드십프로그램(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ASP)으로 불리는 '환자의 임상적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항생제를 선택하고, 알맞은 용량·용법으로 적절한 기간 동안 투여하여 불필요한 항생제의 사용과 약물의 독성을 최소화하고 최선의 환자치료를 도모하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및 항생제관리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약사 서비스이다.

감염관리 약료 서비스의 필요성

- 항생제의 과도한 사용은 전세계적으로 의료비용, 의약품사용 과오를 증가시킬 수 있는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부적절한 항생제 요법은 사망률, 약물이상반응, 항생제 내성유발 다제내성균의 발현 위험과도 연관되어 있다.
- 항생제는 병원 약제관련 예산의 최대 30%를 차지하고 입원환자의 50% 이상이 항생제 치료를 받지만, 그중 최대 50%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최적의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며 이로 인해 의료비용도 증가하였다.
- ASP에의 약사 개입 효과분석을 위해 약사의 참여 기간과 불참 기간을 후향적 차트 분석 하여 비교한 논문에 따르면 약사의 중재가 없는 기간에 항생제(imipenem-cilastatin, linezolid, micafungin) 부적절 처방과 약물치료 기간이 각각 약 30%, 2.6일 증가, Clostridium difficile 감염은 3배 증가하였다.

감염전문약사의 의료기관내 현재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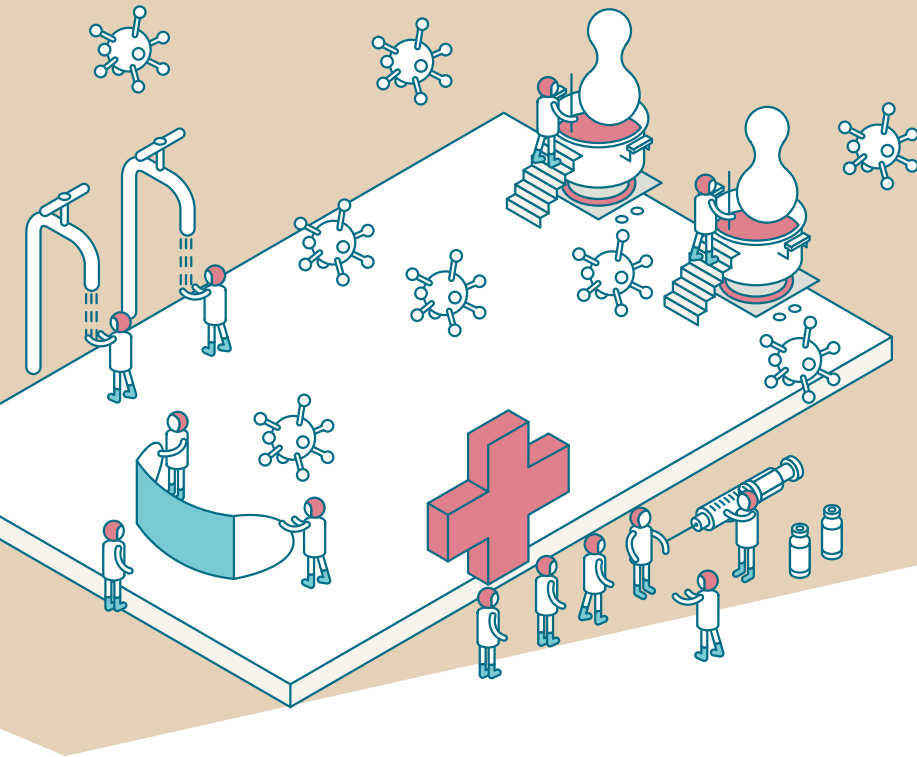
한국병원약사회에서는 2008년부터 치료성과 및 환자의 건강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 전문분야에 통달하고 약물요법에 관해 보다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임상약사인 전문약사제도를 운영하여 2019년 현재 68명의 감염전문약사를 배출하였다.

이제 시작된 국내 감염관리약료 서비스는 시행된 병원에서 약사가 원내 항생제 처방을 검토하고, 감염내과 회진에 참여함으로써 부적절 처방 비율은 23.8%에서 9.7%로 감소하였고 상급종합병원에서 혐기성 커버 항생제에 대한 약사의 처방검토 업무를 도입한 결과, 환자 중 73.9%에서 불필요한 혐기성 커버 항생제의 이중처방을 탐지하여 중재하였음이 연구결과로 나왔다.

현재는 이에 대한 인력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 시행하는 병원이 많지 않으나 COVID-19와 같은 신종 감염질환으로 인해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항생제사용은 항생제 내성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감염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2020년 4월 7일 전문약사가 법제화됨에 따라 약사의 전문영역 업무수행이 인정받고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자료 및 문헌

- DUR 정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2017 소아청소년 하기도 감염의 항생제 사용지침 (질병관리본부)
- 환자안전을 위한 전문약사의 역할 (2019 한국병원약사회 정책토론회)
- 항생제부작용 예방 및 관리 방안 연구 (2018.10.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병원약사회)



김명철 (39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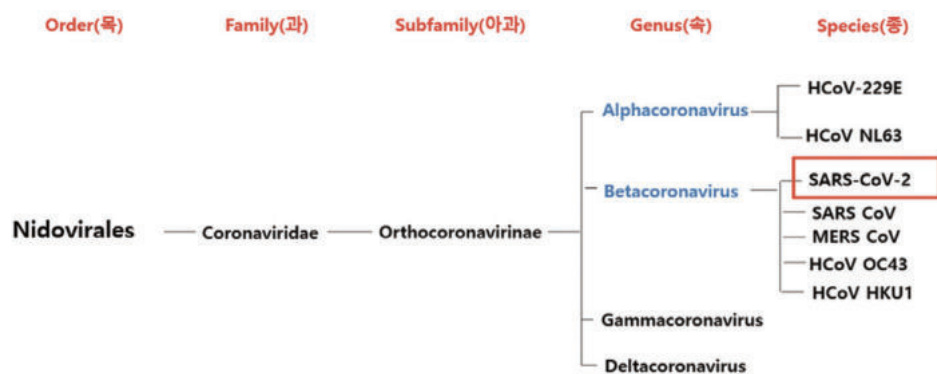
중앙대 약대 졸
 중앙대 약대 병태생리학 박사
 대한약사회 학술위원
 온누리 동산약국

SARS-CoV-2의 이해와 약물

전세계를 공포로 몰고간 COVID-19를 유발하는 SARS-CoV-2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과(Coronaviridae)에서 Genus(속)에는 네 가지가 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네 가지로 분류되며, 아래 그림을 보면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SARS-CoV-2는 베타 코로나바이러스에 속함을 알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분류

Alphacoronavirus, Betacoronavirus는 박쥐와 설치류에서 유래하고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다고 함
 Gammacoronavirus, Deltacoronavirus는 조류에서 유래

알파 코로나 바이러스는 HCoV-229E와 HCoV-NL63은 주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알파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고양이에게 설사등 유발시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Feline coronavirus라 하고, 강아지에게 설사등을 유발시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Canine coronavirus라 하는데, 동물병원에서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하면, 이번 SARS-CoV-2와는 관련이 없다.

베타 코로나바이러스 중 HCoV-OC43 과 HCoV-HKU1 는 주로 상기도 감염을 유발하고, 반면에 SARS-CoV와 MERS-CoV는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 및 설사, 림프구 감소증, 간기능 이상 및 급성 신부전 같은 폐 외 증상을 나타내며, 심각한 하기도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바이러스를 공부하다 보면 볼티모어 분류라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David Baltimore라는 미국의 생물학자가 바이러스의 복제 방식 등으로 크게 7가지로 분류했는데, 코로나바이러스는 볼티모어 분류로는 (+)Single strand RNA Virus로 양성 가닥의 RNA 바이러스란 뜻으로 양성 가닥이라 함은 숙주 세포내로 들어오면 mRNA와 염기 서열이 같다는 뜻이다.

따라서 메르스나 사스 바이러스 등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도 결국 코로나바이러스 계열이기 때문에 모두 (+)Single strand RNA Virus의 일종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감기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리노 바이러스도 볼티모어 분류로는 (+)Single strand RNA Virus이다.

반면에 유명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Single strand RNA Virus이다.

코로나바이러스의 구조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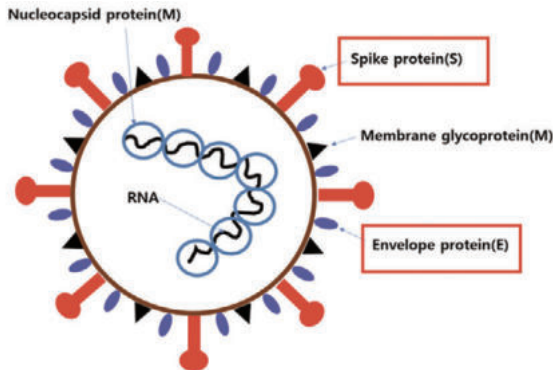
코로나바이러스라고 명명한 것은 바이러스 표면이 왕관 모양처럼 돼 있다는 말로 corona의 역사적 의미는 로마 시대의 대표적인 머리 장식으로 보통 나뭇잎으로 만든 고리 모양의 머리 장식이라 한다. 그 후 왕관으로 발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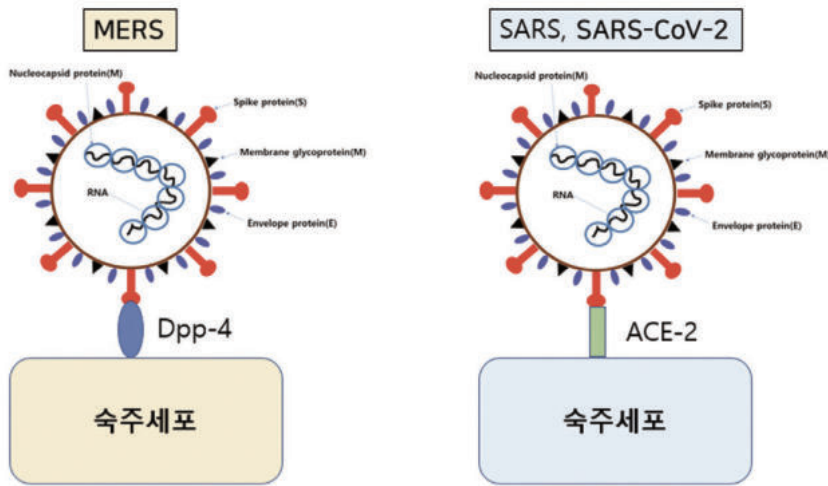
바이러스의 구조를 보면, Spike Glycoprotein이란 부분이 왕관처럼 보인다는 이야기다. 이 Spike Glycoprotein의 머리 부분을 S1이라 하며, 줄기 부분을 S2라 하는데, S1 부분이 숙주 세포의 표면의 수용체와 결합을 하는 부분이다.

코로나바이러스들은 숙주세포에 부착할 때 숙주 세포 고유의 수용체에 결합하는 특징을 갖는다. 메르스 같은 경우는 메르스바이러스의 S1 부분이 숙주 세포의 dipeptidyl-peptidase 4 (DPP4)에 결합을 하고, 사스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숙주세포의 angiotensinconvertinglezyme2(ACE2)에 결합을 한다.

또한 숙주 세포 표면에 ACE2를 단백 분해시키고, spike protein을 쪼개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내로 진입시키는데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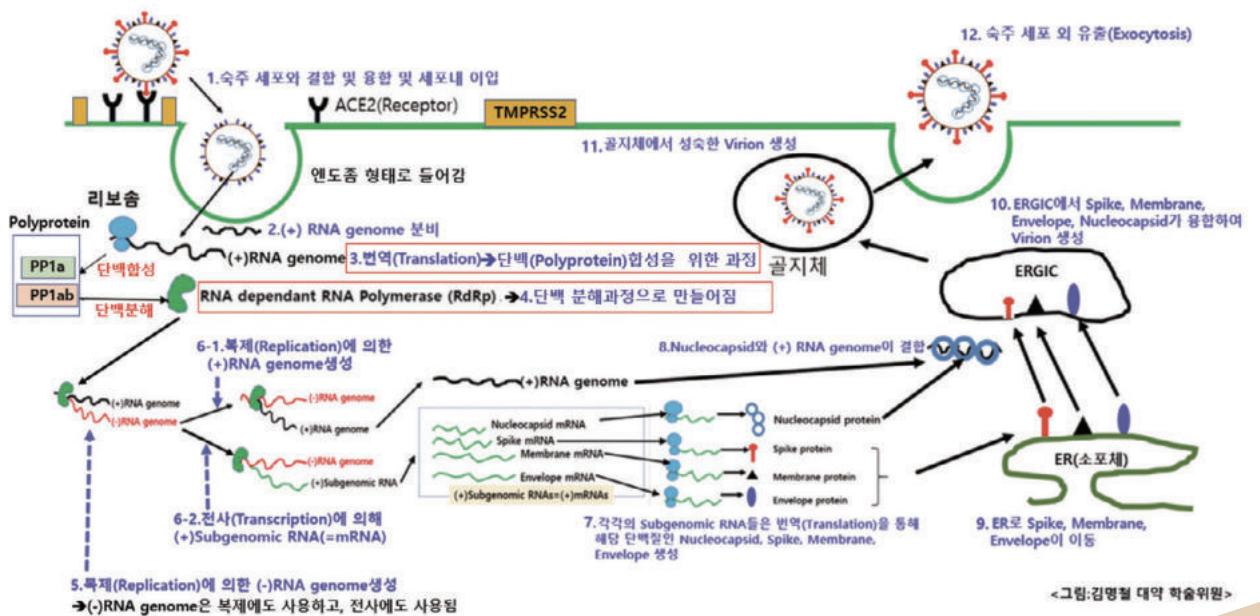
코로나 바이러스의 구조





이하게 하는 Transmembrane serine protease 2(TMPS2)를 이용하기도 한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도 사스 바이러스처럼 숙주 세포의 angiotensin-convertingenzyme2(ACE2)에 결합한다고 밝혀졌다.

SARS-CoV-2의 복제 방식
SARS-CoV-2는 다음과 같다.



- 1 숙주 세포 표면에 ACE-2와 결합하여 엔도솜 형태로 들어옴
- 2 (+) RNA genome을 분비한다.
- 3 (+) RNA genome이 리보솜과 결합하여 Polyprotein인 PP1a와 PP1ab를 만듦
- 4 Protease인 3CL⁻pro와 PPL⁻pro에 의해 단백분해를 하여 복제에 필요한 가장 대표적인 RNA dependant RNA Polymerase(RdRp)를 만든다.
- 5 (+) RNA genome를 주형으로 RNA dependant RNA Polymerase(RdRp)를 이용하여 (-) RNA genome을 만든다.
- 6-1 (-) RNA genome을 주형으로 원래 바이러스의 특징인 (+) RNA genome을 만든다.
- 6-2 (-) RNA genome을 주형으로 바이러스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 (+)Subgenomic RNA들을 만든다.
- 7 (+)Subgenomic RNA들은 리보솜과 결합하여, Spike 단백질, Membrane 단백질, Nucleocapsid 단백질 등 여러 가지의 단백질을 만든다.
- 8 (+) RNA genome과 Nucleocapsid 단백질은 결합하여 ERGIC로 간다.
- 9 나머지 단백질은 소포체로 이동한다.
- 10 ERGIC에 모두 융합하여 virion을 형성한다.
- 11 골지체로 이동하고 세포 밖으로 나간다.

SARS-CoV-2의 치료 후보군

- 1 Nafamostat, Camostat : TMPRSS2를 억제하여 세포 내 진입을 어렵게 함
- 2 클로로퀸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 : 세포내 침입 시 당화과정을 막고, 엔도솜내에서 pH를 올려 세포내 수송을 막는다.
- 3 Lopinavir/Ritonavir : 3CL⁻pro의 작용을 억제하여 Polyprotein의 작용을 억제한다.
- 4 Remdesivir : RNA dependant RNA Polymerase(RdRp)의 작용을 억제한다.

후보 백신들

- 1 아데노 바이러스를 벡터로 이용하여 유전자를 삽입하는 백신
- 2 mRNA 백신으로 근육세포 내 주입하여 Spike 단백질을 합성하는 백신
- 3 spike 단백질 조각을 항원으로 만들어 직접 나노입자에 담아 주입하는 백신
- 4 안정적 구조의 DNA 조각을 이용해 유전자를 전달하는 백신

이렇게 현재 코로나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 약물들이 좋은 효과를 보여 SARS-CoV-2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동문회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젊은 후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

동문회 발전을 위한 동문회장과 젊은 학번 후배들의 좌담회

일 시 : 2020년 7월 21일

장 소 : 진도올돌목가는길

참석자 : 최광훈(22회) 동문회장, 최두주(25회) 사무총장
김윤(59회) 동문회 청년약사위원장, 김태수(60회), 이기철(61회)



사무총장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25회 최두주 사무총장입니다. 오늘의 이 뜻깊은 자리를 위해 어렵게 시간을 내주신 우리 후배들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선 이 모임의 주관자인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 최광훈(22회)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문회장 제일 먼저 어려운 시간 내서 자리해 준 후배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두절미하고 이 시점에서 왜 이런 자리를 마련했느냐 하면 지금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우리 약학대학 동문회 구조가 졸업 20주년에 소위 성년식을 거치면서 비로소 동문회에 발을 디디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어려운 시절, 졸업 후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닦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 그렇게 되었지요. 하지만 시대 상황의 변화에 걸맞게 동문회도 보다 전향적으로 변모해야 하고, 선배님들의 노고와 열정으로 이만큼 자리잡은 동문회가 역동성을 가진 살아있는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젊은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 동문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배님들이 열심히 동문회를 잘 이끌고 빛내 주신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후배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동문회를 끌고 나가면서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젊은 후배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자리에 같이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이렇게 모여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발전 방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총장 우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는 1회부터 큰 족적을 남긴 선배님들이 회장을 맡아서 발전을 이끌어 주셨고 현재 22대 최광훈 회장님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문회의 조직을 보면 동문회장 중심으로 회장단이 있고, 전직 동문회장이나 대한약사회장 등을 역임한 선배들로 고문단, 자문위원단이 꾸려져 있으며, 또한 초창기부터 여동문회가 따로 구성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 4천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후배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학기금운영위원회를 위시하여 각 직능별로 다양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각 기수별 동기회, 서울·경기 지부, 각 시도별 분회 등이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어 동문회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연초에 학교 교수님들과 자문위원단, 고문단 중심으로 신년교례회를 갖고 있으며, 연 1~2회 전지이사회를 개최하고, 매년 5월에 정기총회를 갖고 있지요. 10월 둘째 주 일요일에는 4~5백명 정도의 동문들이 참석해서 모교의 날 행사 겸 동문들의 축제인 체육대회를 중대부중 운동장에서 개최하며, 이와 별도로 150~200명 정도의 동문들이 참석하는 골프대회가 큰 관심을 받으며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동문회 발전의 큰 그림을 위해 젊은 동문들의 참여를 꾸준히 독려한 결과 몇 년 전부터 30 몇 회까지는 나오는데 40회 이후 기수들은 거의 안 나와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경우에도 각 동기회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그게 모태가 되어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초석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철 저는 지금 식약처에 근무하고 있고, 그래서 약국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동기회의 필요성이라든가 과연 내가 동기의 일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외에도 동기회 말고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약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는 개국약사 또는 근무약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 사람들에게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관심도 크지 않다고 봐야겠지요.

이익집단인 대한약사회 이런 데는 아무래도 거리가 멀고, 동문회도 피부에 가깝게 와 닿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 관심 밖이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무총장 지금 이야기한 대로 대한약사회는 이익집단인 것이 사실이지만, 동문회는 그렇지 않아요. 절대 이익집단이 아닙니다. 같은 터전에서 같이 배우고 나왔기 때문에 어떤 이익을 얻고 뭐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함으로써 같이 발전을 하자' 이런 뜻에서 동문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동문회장 동문회가 사실 뭐 어떤 걸 해주는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생활하다 보면 동문이 주위에 있으면 든든하고 도움을 받기도 좋고 말 걸기도 쉽고 그런 것들이 동문이라는 거지요. 관계를 좀 더 끈끈하게 하는 것, 후배들이 있다면 그냥 자발적으로 선배가 좀 관심을 쏟아주고 이왕이면 좀 쉬운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이런 것들이 동문의 존재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힘들은 우리가 자주 모이고 우리가 중대 동문이라고 하는 의식을 평소에 갖고 있으면 훨씬 더 잘 발휘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기철 지금 회장님 말씀 듣고 생각이 났는데요. 어떤 공통된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동기는 물론 자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당장 우리가 모여서 뭔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계기는 어떤 위기상황이 있을 때 보다 자연스럽게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기외식 자체 아니면 그 해결책을 찾아서, 예컨대 약사직능에 도전적인 요인에 대처하는 약사로서의 상대적 동질감이라든지, 같은 직종 내에서라면 다양한 구성원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하는 현실적인 동기가 있어야



우리가 동문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뜻을 같은 문을 드나들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같은 문을 드나드는 것은
 동문과 가족밖에 없어요.
 어찌보면 '동문은 곧 가족이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지요.

한다고 느낍니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면 좋고, 뚜렷한 이슈가 없다면 발굴해서라도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조직화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무총장 오늘 오신 분들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평소에도 맡은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만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태수 저는 최우선적으로 그냥 해당 학번들끼리 알아서 먼저 잘 뭉치고 친해져야 그 다음에 동문회를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저희 나이에는 아직 동문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히 먼 존재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한 번 동기들끼리 모임의 자리를 주선하려고 합니다. 저희들끼리 먼저 친해야 그 다음에 동문을 의식하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중앙약대의 일원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테니까요. 설령 다섯 명이 모일지 열 명이 모일지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먼저 시작해서 다행히 재미있으면 그 다음 모임에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등등 시작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주류 집단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소수 의견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을 했지요. 그런 점에서 회장님의 정책 중 하나가 약국만 집중하는 동문회가 아니고 공직이나 생산·유통 등 다양한 직종의 동문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조직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윤 일단 동문회 사무총장님이 이리저리한 취지로 회장님과 몇몇 젊은 동문들이 모이는 자리라고 해서 좋은 기회라는 생각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이전에 그럴 기회가 없다가 이번에 동문회 현황을 듣고 이렇게 뿌리가 깊고 역사가 깊은지 몰랐는데 소상히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향후 동문회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20년이라는 그 터울 그게 옛날에 들었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다시 들었을 때는 왜 그 20년이라는 간극이 있어야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총장 그게 옛날에 1회 졸업생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보면 상당히 어려운 시절이었지요. 지금보다 경제적 형편이 훨씬 어려울 때였다는 말이지요. 그러다보니 자연히 앞뒤 안 가리고 앞만 보고 열심히 뛰어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허리를 펴만하다고 느낀 때가 소위 어른이 된다고 하는 졸업 후 20년이 지난 시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동문회를 결성할 현실적인 여력이 겨우 생겼다고나 할까요.

그때와 여건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여러분 역시 아직은 사회 나온 지 얼마 안 되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거치다 보니 동문회 조직이나 이런데 관심이 클 수는 없겠지요. 집행부도 이전의 관행대로 관심을 못쓰다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봐야지요. 따라서 지금은 여러분과 같은 젊은 동문들이 스스로 동문회 조직에 들어와 줘야 하는 시기이지요. 거두절미하고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선배들은 선배들대로, 그리고 후배들은 후배들대로 서로서로 각성도 좀 하고 해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해나가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네요.



동문회장 그런 낡은 유산의 터널을 빨리 지나기 위해 실은 코로나 사태만 아니면 우리 젊은 동문들만을 위한 어떤 활기찬 모임을 따로 가지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가지고 있어요. 체육대회라든가 체육대회는 아니더라도 다 모여서 하다못해 맥주라도 한번 먹자, 치맥이라도 와장창 한번 모여 먹어보자고 그런 행사라도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약사회는 물론 공직, 생산·유통 쪽 동문들 모임을 한 번씩 다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간되는 몇 분이라도 모여서 동문회와 연계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조만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문회보 등을 통해서라도 우리 동문들이 병원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공직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널리 알려져서 평소 잘 모르거나 관심없이 지나간 사항에 대해 알게된만큼 자부심도 생기고 또 그런 동문들을 연대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동문이라는 자부심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총장 지금 회장님 말씀대로 이런 자리가 하나의 씨앗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쳇말로 예전에는 회장님이 품만 잡고 있어도 존경을 받는 시절이 있었지요. 지금은 그런 마인드 가지고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제는 발로 뛰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시대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하기는 하지만 후배님들이 이런 자리를 계기로 의식을 새롭게 다듬어서 동문회가 나뉘어야 없어도 잘 돌아가겠지 하는 생각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뭔가를 얻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이렇게 내가 참여하고 동기회가 활성화되고 하다보면 결국 동문회 발전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후배들 오늘 이렇게 불러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바를 열심히 해나가야 하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맡은 바를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졸업하고 아직 동기들 모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동기들 모임부터 가지는 것, 그게 시작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걸 시작으로 동문회에 어떻게 기여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솔직히 동문회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었던 점을 인정하고 동문회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문회장 오늘 아주 즐겁고 재미있는 자리가 되었어요. 우리가 동문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뜻을 같은 문을 드나들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같은 문을 드나드는 것은 동문과 가족밖에 없어요. 어찌보면 '동문은 곧 가족이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뭔가 크고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기회가 되면 이런 자리를 반드시 마련하도록 약속할게요. 수고들 많았습니다.



임완호 (6회)
동문회 고문
풍전약품 회장



임성기 회장을 추모하며

몇 주 전 일요일 아침 갑작스런 임회장의 소천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음은 물론 내 자신이 한 장면의 악몽을 꾸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킬만큼 큰 충격이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중앙약대 6회 동기회 모임에서 자사 제품의 팔팔구구정에 비유하여 우리 다 같이 팔팔하게 구십구세까지 같이 살자면서 격려한지가 엇그젠데 벌써 혼자만 소천하였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임성기 회장님은 평소 노년건강 유지를 위한 상식도 풍부하였으며, 실제 이를 위한 노력도 남달리 하였음을 지적에서 오래 동안 보아왔던 친구로서 이렇게 허무하게 영면하였다니 더욱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임성기 회장님은 동대문에 약국을 개설하여 개업 약사가 생각하지 못한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일찍이 크게 성공을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미약품(주)을 창업하였습니다. 한미약품을 창업하여 선진 제약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약 기술 개발에 도전해야한다는 당시에는 감히 넘보지 못할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수십 년을 각고 매진하였지요. 드디어 개발된 신약기술을 세계적인 선진제약사에 수출하는 깜짝 놀랄 업적을 이룩한 자랑스러운 동기였으며 우리나라 제약 산업의 개척자요, 약업계의 거목이었습니다.

임성기 회장님은 미래를 꿈꾸는 사나이였습니다. 오래전 젊은 날 이야기입니다만, 사업이란 10년 후를 목표로 정하고 꾸준히 노력하면 도달할 수 있다는 신념에 찬 말은 본인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으며 지금도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있습니다.

임성기 회장님은 우리 제약 산업 연구개발 선두주자로서 한미약품을 거대 제약회사로 성장시킨 성공 사례의 대명사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가까운 동기로서, 친구로서 임성기 회장의 인격적인 완숙과 선천적인 좋은 품성에 더욱더 많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6년 기술 수출의 성공 이후 한미약품 임직원들에게 1,100억원의 주식을 무상증여한 사례는 임회장의 통 큰 배려와 결단이었으며, 아직까지 이러한 사례를 본인은 본적이 없습니다.

또한 작은 에피소드가 되겠지만, 임회장은 동기 친구에게 식사 한 번 대접할 때도 반드시 사전 준비를 시켜서 세심한 배려로 정성껏 대접하는 지극히 인간미 넘치는 따뜻한 정을 가진 분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에도 크게 성공을 하였으며 인간관계에도 승리한 참다운 성공을 거둔 진정한 성공 사례였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추모의 글을 쓰면서도 임성기 회장의 소천을 믿을 수 없으며, 긍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온화한 미소와 조용한 목소리, 가족과 임직원들은 물론이겠지만 친구와 동기들에게도 세심한 배려와 정성을 다했던 정말 인간적인 품성과 모습을 우리들은 영원히 간직할 것입니다.

인명은 재천이라 했습니다. 임성기회장의 소천을 아무리 부인한들 나 또한 나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사업은 10년 후를 내다보라던 평범하지만 너무나 소중한 가르침, 아주 작은 일에도 동기나 친구들에게 정말 정성을 다했던 임성기 회장님을 우리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임성기 회장님!

임회장과의 영원한 이별이 너무나 슬프고 통탄스럽습니다. 그동안 이생에서 정말 바쁘게 살았지요, 부디 좋은 곳에서 영면하소서...

한국휴텍스제약 대학발전기금 전달식



‘한국휴텍스제약 대학발전기금 전달식’이 3월 30일(월) 오전 11시, 서울캠퍼스 201관(본관) 3층 총장회의실에서 열렸다. 본 행사는 ▲장학기금 전달 ▲감사패 전달 ▲사진 촬영 ▲기념품 전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한국휴텍스제약의 이상일(20회) 동문과 김성겸 대표, 우리 대학의 박상규 총장, 이산호 행정부총장, 최영욱 대학원장, 이재취 약학대학장, 손의동 약학대학 교수, 이무열 대외협력처장, 나창훈 대외협력팀장이 참석하였다. 이상일(20회) 동문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학생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발전기금이 쓰

였으면 좋겠고 앞으로 더 많은 기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3억 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이에 박상규 총장은 “약학대학 발전기금으로 소중히 쓰도록 하겠다.”라고 대답했다. 한편, 이상일(20회) 동문은 우리 대학 약학대학을 졸업한 후 2008년부터 한국휴텍스제약의 대표이사를 맡았다. ROTC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과 통찰력을 겸비해 부진했던 회사를 이끌었으며 지난 5년 사이 3배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 바 있다. 향후 10년 동안 미래약대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약대 연구 발전기금 100억 원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수동정



김홍진(20회) 교수 정년퇴임

모교에서 병원미생물학, 임상미생물학을 담당하던 김홍진(22회) 교수가 2020년 8월 31일 정년 퇴임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후 미국 페어라이디킨슨대학에서 분자생물학 전공으로 석사, 럿거스 대학에서 미생물학 전공으로 박사 취득 후 Weyth/Pfeizer사에서 Postdoctoral Scientist로 근무했다. 이후 귀국하여 한미약품 중앙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근무 후 1999년 9월 1일부로 모교 약학대학 조교수로 부임했다. 약대 6년제 도입 시 바이오의약품학 저서를 집필하며 약대 커리큘럼에 없던 바이오의약품학을 개설하여 후학을 지도해 왔다. 재직 시 24년 동안 바이러스와 백신을 연구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바이오 벤처인 (주)포스백스를 창업하여 9월 1일부로 대표이사를 맡으며 프리미엄백신 개발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김대경 교수 정년퇴임

예방약학을 담당하던 김대경 교수가 2020년 8월 31일 정년퇴임 했다. 김교수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서 학부와 석사과정을 마친 후 일본 동경대학에서 생명약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포항공과대학 생명과학부 전임강사와 미국 하버드의대 MGH 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1994년 9월 약학대학 조교수로 부임한 이래 독성예방약학 연구실을 이끌며 후학을 양성하여 왔으며 2009년 약학대학장, 의약 식품대학원장 등을 역임하며 26년간 재직했다. 전국약학대학장협의회장, (사)한국약학교육협의회 초대이사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회기반 및 생명복지 전문위원장, (사)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정년퇴임 이후 현재 2018년 11월 창업한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소재 (주)하플사이언스의 CSO 겸 대표이사로 활약하고 있다.



심상수(26회) 교수 명예퇴직

모교 약학대학에서 생리학/내분비학을 담당하던 심상수(26회) 교수가 2020년 8월 30일 명예퇴직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후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공학과 석사,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89년 미국 NIH 박사후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를 거쳐 1997년 모교 약대교수로 임용되어 24년간 재직했다.

신임교수 프로필



유지호

직위: 조교수 전공: 단백질 구조생물학 이메일: jyoo@cau.ac.kr

학력

-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공학사
- 연세대학교 생물학과 이학박사

경력

- 2012.09-2013.06 연세대학교 생물학과 연구원
- 2013.07-2018.06 Department of Biochemistry, Duke University, Postdoctoral Scholar
- 2018.07-2020.02 Department of Biochemistry, Duke University, Research Associate, Senior
- 2020.03-현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조교수



이윤지

직위: 조교수 전공: Bioinformatics 이메일: yoonjilee@cau.ac.kr

학력

-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약학사
-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약학부 약학석사
-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약학부 약학박사

경력

- 2013.03-2015.07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약학연구소 박사후연구원
- 2015.08-2018.10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약학연구소 | 연구교수
- 2017.10-2018.10 Department of Biophysics, University of Texas Southwestern Medical Center, TX, USA | Assistant Instructor
- 2018.11-2020.02 Department of Biophysics, University of Texas Southwestern Medical Center, TX, USA | Instructor
- 2020.03-현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 조교수



이제 일상(日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2020-1학기 약학대학 동문회장학금 수혜자

번호	장학금명	장학금액(원)	전공	성명
1	靑湖 손동헌장학금	2,000,000	제약학과	민혜원
2	김명섭장학금	2,000,000	제약학과	송우길
3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과	박유빈
4	본동문회	1,000,000	약학과	김현지
5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과	강유나
6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과	우유림
7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과	하문민
8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과	정원식
9	본동문회	1,000,000	약학과	오준환
10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과	박종현
11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과	박소영
12	본동문회	1,000,000	약학과	박지현
13	본동문회	1,000,000	약학과	이현지
14	본동문회	1,000,000	약학과	이치호
15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과	강지선
16	본동문회	1,000,000	약학과	이예슬

번호	장학금명	장학금액(원)	전공	성명
17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과	송우석
18	여동문회장학금	1,000,000	약학과	김현성
19	약제반동문회	1,000,000	약학과	문성윤
20	약제반동문회	1,000,000	약학과	정재현
21	26회 동기회	1,000,000	약학과	김수빈
22	26회 동기회	1,000,000	제약학과	김원상
23	약품물리반	1,000,000	약학과	황용하
24	약품물리반	1,000,000	제약학과	김송희
25	병태생리학교실	1,000,000	약학과	박선영
26	병태생리학교실	1,000,000	제약학과	양승준
27	안산동문회	1,000,000	제약학과	안세인
28	28회 동기회	1,000,000	제약학과	이보미
29	28회 동기회	1,000,000	제약학과	주동규
30	부산동문회	500,000	제약학과	박창국
31	생약반동문회	1,000,000	제약학과	이원희
32	생약반동문회	1,000,000	제약학과	안상흠
계		33,500,000		

동문 한 사람의 작은 정성이 큰 동문회를 만듭니다.
회비납부,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2020회계년도 회비내역

2019년 6월 ~ 2020년 5월

회장단회비		600,000원	
22회	최광훈, 고석순, 김인선, 김태일, 김홍진, 박동우 박상룡, 박성준, 오황영, 이영욱, 이정석, 천경호 한만영, 유대식, 박성준, 이준상, 이주원, 민장식	29회	김인혜, 이종옥, 김은진, 김형수
23회	박종화, 권석형	30회	김광식, 최병원
24회	이규삼, 이범도, 함삼균	32회	정선종, 안광열, 조양연
25회	이광인, 최두주, 이현수	34회	신수민, 한일권
26회	최민규, 한갑현, 박정래	36회	우경아, 임기민
27회	곽나운, 김정호, 박영달	37회	황선관
28회	이해룡, 김영희, 이영주, 양덕숙, 김희식, 장원규 구영삼	41회	최명수
		42회	이광희

이사회비		150,000원	
1회	손동헌	20회	김홍진, 박기배, 배성진, 이상일, 임경원, 김현태 류화송, 이극선, 임구래, 최석중, 구장림, 문주기 이영희, 이호선, 정찬현
2회	황재수	21회	김대일, 김수배, 백운경, 김중호, 양주석
3회	강승조, 손석우	22회	이현희, 한상훈, 강희윤, 이규흥, 김수중, 이진우 손의동
4회	이창우	23회	박상진, 조병훈, 김영출, 하충렬, 박희용, 김수중
6회	안인혁, 유상열, 박정배, 장지용, 김동열, 유관열 진교성	24회	김승재, 조종래, 임무호, 장규욱, 김태두, 황규진
7회	박명신, 이기안, 정재일, 서명규, 김정부, 이양현	25회	고성권, 김완기, 김희섭, 이래흥
8회	김연희, 김희영, 박번일, 조의환, 임상묵, 한석원 오창준	26회	손영상, 김정수
9회	김홍래, 박장우, 이규진, 이근배, 권혁구	27회	박수길, 최충식, 오흥설, 변옥희, 오순용, 현기원
10회	박호일, 방순환, 이정사, 이흥수	28회	이병천, 전금용, 유희동, 김유곤, 신영무, 이상수
11회	김창중, 박신규, 박찬희, 김미자, 고승하, 이철규 황공용	29회	한일룡, 손병로, 박웅삼
12회	심재웅, 염윤기, 이성우, 노덕재, 조택상, 이관하 이호섭	30회	김해승, 김혜수, 신일균, 최병태, 김연하, 김해승
13회	구연홍, 문재빈, 안병식, 이상길, 박동규, 이종각 최창엽, 윤해선, 서국진	31회	오세정, 윤희정, 이미자, 이춘노
14회	구종모, 김동원, 조길도, 박기진, 조병화, 김윤국 정도언	32회	이경우, 정영복, 유명식
15회	조찬휘	33회	김영재
16회	백승복, 이상규, 이은솔, 최창원	34회	김보원
17회	김인형, 양희익, 장재인, 이희정, 선우영환	35회	양윤정, 임중식, 송지숙, 오창현
18회	조중형, 강응모, 김기명	36회	김진수
19회	남상구, 이경욱, 이창욱, 박효식, 윤건섭	37회	이경모
		38회	임향숙
		39회	박성훈, 한은경, 권성렬
		42회	정동만
		53회	최신형

일반회비		30,000원
4회	정진원	25회
5회	윤재훈, 임맹순, 김주원	이수영, 김용빈, 김선열, 이동규, 위성건, 이영제 오근택, 손현우, 이승정, 조경래
6회	김태춘, 신의명, 임은순, 이원걸, 황선창, 이풍기 이만형, 문종찬	26회
7회	윤태정, 이상현, 조경신, 조근행, 조익중, 이형진 이명원, 한경석, 김경동, 배정명, 전연홍	이윤일, 오승주, 진희역, 김윤수, 이순아, 김재억 최종배, 김봉일, 최옥숙, 이기평, 박주돈, 라중우 반수호
8회	강윤구, 김순자, 안덕기, 유재우, 임천석, 최귀령 최영자, 허근희, 신현우, 이태하, 조수현, 정달수 정재영, 정재용, 이백천, 정수광, 임진택, 주학철 김형이	27회
9회	노신희, 권오성, 이병호, 정상모, 김학진	전명수, 김창식, 이정아, 오애영, 조광호, 문연숙
10회	박광일, 심수일, 이원일, 이장열, 김정남, 심수일 김영민	28회
11회	구자역, 안홍신, 전창환, 한창희, 양계창, 이석태 차영진, 이범진, 이명자, 김기영	김상범, 문현미, 이석원, 유정수, 조한균, 장민수
12회	이순우, 이정희, 문혜성, 오형철, 우홍길, 김신우 정용오, 이연수, 정광식, 김대건, 김동욱, 박흥식 최병호, 최덕구, 최복자, 신명희, 박병달, 김일영 심재창(50만원)	29회
13회	최승기, 김석규, 우동진, 최창조, 이우식, 이규선 김세대, 김희겸, 조성도	장우성, 한규인, 사철기, 이경근, 장승학, 심미선 장병곤
14회	김진행, 현해경, 류효성, 박찬임, 홍성철, 김명수 김인덕, 김중렬, 김영일, 상경숙, 이병조, 채성기 전영표	30회
15회	이인석, 김대웅, 송현숙, 황인영, 김용규, 이명숙 경명호, 진중렬, 이덕노, 박태호, 김관호	고은숙, 이호일, 조수연, 송정숙, 손은실, 문미래 김용규, 강형숙, 도민숙, 조민숙, 김영희, 이경숙 최현희, 김상의, 서정봉, 홍염미, 박인주
16회	윤영위, 이규주, 신규언, 박종애, 조연심, 김광길 신진숙	31회
17회	김현화, 이영자, 최해광, 신승백, 이동우, 이희정 주완표, 전상훈, 이완철	이정희, 유영숙, 이병각, 김도형, 김미경, 이동익 송소연, 류문숙, 강미숙, 유지영, 윤희정
18회	육득윤, 권영철, 여운숙, 양만기, 남애숙, 임태영 오영선, 김상각	32회
19회	장명섭, 배영덕, 남윤수, 윤영문, 채희태, 고문찬(고재무)	채영주, 안승희, 유귀숙, 정현삼, 육혜경, 이경준 심상철
20회	김영식, 남덕자, 이재형, 정동천, 정영수, 윤춘수 김평자, 김종갑, 서기수, 민태형	33회
21회	신길득, 장창만, 한찬수, 이상준, 조홍윤, 김구영 이기복, 강성무, 김진자, 김용주, 한성희, 김동학 송진용, 우건상, 안병현, 조형래, 백기홍, 이두순 정재일	최현정, 이성수, 전광석
22회	오기환, 김광준, 양희복, 장상대, 정태화, 박성태 송수영	34회
23회	나용태, 김민영, 이원길, 송명숙, 강호영, 임창영 김재한, 정종민, 박찬중	민성철, 김용수, 백희숙, 이 준, 노영화, 박병호 임혜숙, 성선경, 김성현, 이선우, 박상권, 강용남
24회	김정무, 정상수, 박관수, 신용철, 함기철, 임철빈 오세홍	35회
		김성훈, 우난숙, 양정희
		36회
		방극상, 유복진, 박종구, 박화신
		37회
		오상희, 임성주, 김성엽, 이정우, 전상인
		38회
		성치순, 함미경, 이명희, 이주희, 박종일, 현수윤
		39회
		김명철
		40회
		이필상
		41회
		박영진, 장산옥, 이은경, 김홍주, 구영준, 이호섭
		42회
		박소영, 임태규, 이창경, 민명기
		43회
		송세현, 정의찬, 고정봉, 문상희
		44회
		고기현, 조동환, 김지하, 박승희, 조찬균
		45회
		배종구, 강병균
		46회
		신현주, 김기돈
		47회
		최지혜
		48회
		서효진, 강령아
		49회
		우종식
		50회
		유은걸, 김보건, 정주철, 이명원, 이준희, 박경태
		51회
		김혜지, 서소현
		52회
		이윤정, 황인아
		53회
		윤지영
		54회
		변성민, 윤새롬
		55회
		김승민, 김명중, 박현수
		56회
		이희주
		57회
		이현택, 박승찬, 정영섭, 이상우, 윤정인, 최원열 홍효빈, 유찬재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민예월 출간한 명시 100선 집
박두진 선생의 “해”라는 시에서 인용 한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갱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 먹고
이글 이글 애띤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해야, 고운 해야,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라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 앉아,
워어이 모두 불러 한자리 앉아, 애띠고 고운 날을 누리보리라.

박희용(23회)
편집위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명체인지
단순한 단백질(유전물질) 덩어리인지 신문 칼럼에서 논쟁도 하던데,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는 바이러스가
‘이번에 보니 인간들이란게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라고
자각하여 스스로 감염력을 상실하는 쪽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는한
별 뾰족한 대책이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자각은?

최두주(25회)
편집위원

이 엄중한 사태에 정기총회가 온라인으로 치뤄지고
결산보고서를 포함한 정기총회 자료가 전 회원들에게
전달되는 사상초유의 상황이 발생된바,
어떤 상황에서도 동문들을 위한 동문회의 활동은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각오로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에
격려의 박수를 일반회비 납부로 대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Korea No.1 PHARMACY

온누리약국

온누리약국은 소비자의 신뢰를 받으며 건강과 행복을 만들어 갑니다.
Better Health, More Beauty, Higher Living



No.1 HISTORY

1991년에 탄생한 온누리약국은 건강에 관련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국으로 30년간 대한민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의 약국입니다.

No.1 STORE

온누리약국은 가맹점 2,100처의 약국을 보유한 대한민국 최대 약국 체인의 브랜드 입니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모든 곳에서 온누리약국을 쉽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No.1 PRODUCT

온누리약국은 대한민국 약국 체인 중 최초로 약사로 구성된 R&D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R&D센터에서 개발한 온누리약국의 제품은 소비자들에게 크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No.1 Consumer satisf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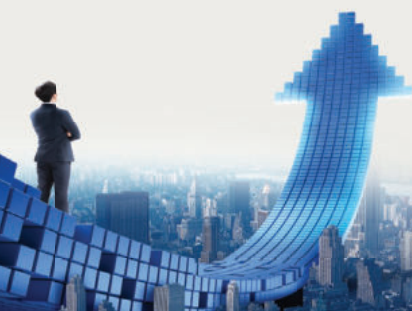
온누리약국은 대한민국 행정 기관에서 공정하게 선정한 '소비자만족지수 약국 체인' 부분 1위를 2년 연속 차지했습니다. 온누리약국의 브랜드 가치는 소비자들이 인정한 소중한 자산 입니다.



약국 성공의 시작

NO.1 약국체인에서!

가맹문의 080-555-2580



안녕하십니까?
한국휴텍스제약에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휴텍스제약은 1969년 국내제약업 제8호로 제약산업을 시작하여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 공급하며 국내 제약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당사는 인류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획기적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 및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휴텍스제약에 보내주신 믿음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로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신뢰경영, 윤리경영, 소통경영, 품질경영을 실천하는 성실한 기업으로의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길, 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약학박사

이상일 이농원 (약학 72학번)

본사 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 344

TEL. 031-377-7900 FAX. 031-377-7911

공장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3길 99(상신리) TEL. 031-377-7903 FAX. 031-377-7912

도전하겠습니다! 개척하겠습니다!

모두가 쉬운 길을 택할 때,
아무도 가지 않는,
새로운 길만을 개척했던 한미약품!
인류건강을 위한
혁신신약 연구개발로
삶의 가치를 높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610호-1

전화 02-565-1700 팩스 02-564-1701 홈페이지 www.caupharm.or.kr 이메일 capa21@hanafos.com